

주일 1부 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요한복음 4:23-24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 찬송	28장
※ 성시교독	45. 시편 103
※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423장
대표기도	정진택 집사
성찬식	집례자
성경봉독	사도행전 9:19b-31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사방에 우거쌈을 당할 때
찬송	이태한 목사
찬송	445장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살아 계신 주(1,3절)
※ 축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 7월 교회일지

특별 새벽기도회:
7월 2일 ~ 7월 6일

창립 기념주일:
7월 8일 (주일)

창립 감사축제:
7월 11일 (수)

◎ 7월 예배봉사자

예배안내 :
박일영/임혜자

새신자 안내:
심경순/김광자

주차안내:
양봉욱/민광호

주방봉사
한상순/김윤숙/장태옥/
원미경/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수요기도: 민선희 집사

이번 주 애찬기도: 이복연 집사

다음 주일 1부: 박병민 집사

다음 주일 2부: 원미경 집사

7월 4일 수요기도: 박수현 집사

7월 4일 애찬기도: 윤형권 집사

7월 8일 1부: 최득수 집사

7월 8일 2부: 박덕철 집사

주일2부예배 (15:00)

인도: 심창진 목사
찬양 / 심창진 목사
기도 / 장연식 집사
성경봉독 / 사 6:6-13
설교 / 진정성을 찾아서 / 심창진 목사
찬송 / 사명
헌금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축도 / 심창진 목사

수요예배 (19:30)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수요찬양단
기도 / 민선희 집사
성경 / 삿 10:1-9
설교 / 회복과 고질병 / 이태한 목사
합심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찬송 / 435장
주기도 / 다함께

건축헌금 지난주: \$ 0.00
총계: \$ 611,888.79

공동체를 위한 금주의 기도제목

- 터키 공동체
 양봉욱: 영주권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온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위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장세환: 온 가족이 더욱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박제용: 막내딸에게 합당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김철재: 온 가족의 건강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동술: 하나님의 뜻 아래서 언제나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 루마니아 공동체: 비자문제로 고민하는 가정에 협통함이 있도록, 사업의 협통함과 사업 때문에 예배 드립에 등한시하지 않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낙심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지혜가 임하도록.
- 베트남 공동체
 최광암: 열방의 선교사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민선희: 남편이 속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석승: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김성희: 자녀들이 건강하고, 남편이 속히 구원 얻도록.
 이정인: 가정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강동호: 주일을 성수 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HELP IN TIME OF NEED

Relief in Time of Suffering -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2...

Hebrew 12:3-8 [히브리서 12장 3절-8절]

Think about all he endured when sinful people did terrible things to him, so that you don't become weary and give up.
죄인들에게서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도 참아 내신 그분을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After all, you have not yet given your lives in your struggle against sin.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면서 아직까지 피를 흘린 일은 없습니다.

And have you entirely forgotten the encouraging words God spoke to you, his children? He said, "My child, don't ignore it when the Lord disciplines you, and don't be discouraged when he corrects you. For the Lord disciplines those he loves, and he punishes those he accepts as his children."

하나님은 마치 자녀들에게 하시듯이 여러분에게 격려하신 말씀을 잊었습니까? "아들아, 너는 주님의 전책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꾸짖으실 때에 낙심하지도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전책하시고 아들로 여기시는 자에게 매를 드신다.

As you endure this divine discipline, remember that God is treating you as his own children. Whoever heard of a child who was never disciplined?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책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여기고 하시는 것인니 잘 참아 내십시오. 자기 아들을 전책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If God doesn't discipline you as he does all of his children, it means that you are illegitimate and are not really his children after all.

자녀들은 누구나 다 아버지의 전책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전책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서자이지 참 아들이 아닙니다.

- 경덕현 집사 제공